

제주 방언 보조 용언의 문법화에 대하여

- '-어 두-'와 '-어 불-'을 중심으로

우창현

(한국어세계화재단)

Woo, Changhyun. 2004. On the Grammmaticalization of the Auxiliary Verb in the Jeju Dialect. *The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n Journal*, 12(4), 103-120. This thesis aims to explain the grammaticalization of the auxiliary verb in the Jeju dialect concentrating on the '-eo du-' and '-eo bul-' constructions. First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s are on the process of the grmmaticalization is discussed. Following Lee(2001), this can be thought as the second step of the grammaticalization. That is, 'du-' and 'bul-' in the Jeju dialect have both the original meanings ('put' and 'throw or dump' respectively) and the derived meanings (resultative and perfect respectively). The mechanism of meaning change is metaphor. Next, the grammaticalization principles are adopted to show the grammaticalization pattern of the the '-eo du-' and '-eo bul-' constructions. Finally, the grammatical properties of the constructions are discussed. Especially the fact that these constructions can have the aspectual meaning resultative and perfect respectively is noticed.

주제어(Key Words): Grammmaticalization, Auxiliary Verb, Jeju Dialect, '-eo du-' constructions, '-eo bul-' constructions

1. 서론

제주 방언 보조 용언의 공식적인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¹⁾ 그러나 이들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 논의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어 두-', '-어 불-'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 방언 보조 용언 문법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특히 이들 보조 용언들의 문법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이처럼 논의의 대상을 '-어 두-'와 '-어 불-'로 제한하는 이유

1) 대표적으로 문순덕(2000)을 들 수 있다.

는 ‘-어 두-’와 ‘-어 불-’이 제주 방언 보조 용언의 문법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되는 것처럼 ‘-어 두-’는 상 의미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그 문법적 특성 상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반해 ‘-어 불-’은 상 의미를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제주 방언의 경우 보조 용언 간에도 그 문법적인 특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어 두-’와 ‘-어 불-’의 문법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된다.

2. ‘-어 두-’와 ‘-어 불-’의 문법화

이승욱(2001)에서는 문법화의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1단계는 원 의미가 보존된 상황이고, 2단계는 암시된 의미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2단계는 원 의미와 암시된 의미가 공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암시된 의미가 고정된 상황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제주 방언 보조 용언 ‘-어 두-’, ‘-어 불-’의 경우는 아직 문법화 2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시적인 제주 방언에서 ‘두다’, ‘버리다’는 원 의미²⁾와 암시된 의미(파생 의미)가 공존하고

2) ‘두다’의 원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확인하면 모두 25개나 된다. (이 중에서 4), 5), 7), 11), 12), 13), 18), 19), 21), 24)의 의미는 제주 방언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의미는 ‘지속’이 된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두다’의 의미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곳에 놓다. 2) 어떤 상황이나 상태 속에 놓다. 3) 가져가거나 데려가지 않고 남기거나 버리다. 4) 기본 음식에 탄 재료를 섞어 넣다. 5) 이부자리나 옷 따위에 솜 따위를 넣다. 6) 사람을 머물거나 묵게 하다. 7) 진영 따위를 설치하다. 8) 직책이나 조직, 기구 따위를 설치하다. 9) 중요성이나 가치 따위를 부여하다. 10) 생각 따위를 가지다. 11) 인정, 사정 따위를 해아려 주다. 12) 공식적인 직장으로 가지다. 13) 행위의 준거점, 목표, 따위를 설정하다. 14) 어떤 것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다. 15)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간직하다. 16)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 17) 시간적 여유나 공간적 간격 따위를 주다. 18)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이나 기간에 걸치다. 19) 사람을 데리고 쓰다. 20) 어떤 사람을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가지다. 21) 어떤 것을 논쟁이나 감정, 언급의 대상으로 삼다. 22) 앞의 것을 부정하고 뒤의 것을 긍정하거나 선택할 때 쓴다. 23) 바둑이나 장기 따위의 놀이를 하다. 또는 그 알을 놓거나 말을 쓰다. 24) 세상이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고 얼마간 떨어져 있다. 25) 어떤 대상을 일정한 상태로 있게 하다.

이 글에서 다만 11), 14), 16), 17), 21), 22), 24)는 ‘지속’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상관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역시 다른 대다수의 의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지속’의 의미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버리다(버리다)’의 원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확인하면 7개나 된다. 이들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를 확인시켜 주는 예이다.

(1) 가. 그걸랑 그 우퓌 두라. (그것은 그 위에 두어라.)

나. 쌀은 고팡에 두어사 혼다. (쌀은 창고에 두어야 한다.)

(1가, 나)는 ‘두다’가 대표적인 원 의미 1)('일정한 곳에 놓다')로 쓰인 예이다. 이처럼 공시적인 제주 방언에서 ‘두다’가 원 의미로 쓰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 가. 그건 그지게 문든 거라부난 못 먹은다. 버려 불라. (그것은 그제 만든 것이어서 못 먹는다. 버려 버려라.)

나. 연필 죽은 건 못 쓴다. 버려 불라. (연필 작은 것은 못 쓴다. 버려 버려라.)

다. 연필 죽은 건 못 쓴다. 대껴 불라. (연필 작은 것은 못 쓴다. 버려 버려라.)

(2가, 나)는 ‘버리다’가 원 의미 1)('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로 쓰인 예이다. 이처럼 ‘버리다’ 역시 공시적인 제주 방언에서 원 의미로 쓰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버리다’가 원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대끼다’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버리다’와 ‘대끼다’의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대끼다’가 더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2다)는 ‘버리다’가 ‘대끼다’로 대체되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음을 보이는 경우이다.³⁾

이 두 동사는 이처럼 원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함께 암시된 의미, 즉 원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원 의미에서 파생된

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는 ‘종결(완료)’이 된다.

1)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 2) 못된 성격이나 버릇 따위를 떼어 없애다. 3) 가정이나 일정한 직업을 스스로 그만두고 다시는 손을 대지 아니하다. 4) 종사하던 일정한 직업을 스스로 그만두고 다시는 손을 대지 아니하다. 5) 직접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사이를 끊고 돌보지 아니하다. 6) 품었던 생각을 스스로 잊다. 7) 본바탕을 상하거나 더럽혀서 쓰지 못하게 하다.

3) ‘버리다’가 ‘-어 불-’로 문법화 되는 과정에 있음에 따라 ‘버리다’가 원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대끼다’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즉 ‘버리다’와 ‘대끼다’가 동일한 어휘 의미를 가지고 공존하다가 ‘버리다’는 ‘-어 불-’로 문법화 되는 과정을 선택하고 어휘 의미는 ‘대끼다’가 전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 전담 현상은 “-어 대끼-와 같이 ‘대끼다’가 보조 용언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의미가 쓰이는 ‘두다’의 예이다.⁴⁾

(3) 가. 난 누어 돛서 말 꼴앗저. (나는 누워 있으면서 말을 했다.)(문순덕(2000:85))

나. 난 누영 이시멍 말 꼴앗저. (나는 누워 있으면서 말을 했다.)

다. 우린 문똥이 사 두서 방안을 솔뻗저. (우리는 문 위에 서서 방안을 살폈다.)(문순덕(2000:84))

라. 우린 문똥이 상 이시멍 방안을 솔뻗저. (우리는 문 위에 서 있으면서 방안을 살폈다.)

(3가)는 ‘-어 두-’가 쓰인 예로 ‘-어 두-’가 ‘두다’의 원 의미에서 파생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⁵⁾ 따라서 (3가)의 ‘두-’를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 ‘이시-(存)’로 대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3나)는 ‘두-’를 ‘이시-’로 대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3다), (3라)에서도 확인된다. 즉 (3다)의 ‘-아 두-’를 (3라)의 ‘-앙 이시-’로 대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 의미에서 파생된 파생 의미가 나타나는 문법화 기제는 ‘은유(Metaphor)’에 해당한다. ‘은유’는 ‘어떤 대상을 다른 종류의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의 전이(Lakoff & Johnson(1980), Claudi & Heine(1986) 등)’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은유’에서 중요한 점은 일종의 유추 행위가 영역을 가로질러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한 영역에서의 개념이 또 다른 영역에서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을 ‘은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결은 자의적이 아니라 유추나 도상성 등이 이용되는 규칙성을 띤 것이다. 연결을 통해 일어나는 전이는 근원에서의 모든 것이 다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부분들은 생략되고 그 중의 중요한 뼈대만이 전이된다.(이성하(2000:222))

4) ‘-어 두-’가 ‘두다’와 의미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것은 ‘-어 두-’가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어 두-’가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다’가 ‘진행’의 상 의미를 가진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을 두는 동작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진행’과 같이 시폭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는데 이러한 특성이 ‘-어 두-’에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뒤에서 논의할 문법화 원리 중 ‘의미 지속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5) ‘-어 두-’의 문법 의미가 ‘(결과) 지속’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두다’의 구체적인 원 의미에서 ‘지속’의 의미가 파생되는 것 역시 ‘두다’가 가지는 근원 의미에서 뼈대가 되는 ‘어떤 것을 두는 동작 결과가 ‘지속’된다는 의미’만이 전이되는 경우으로써 ‘은유’라고 할 수 있다.

문법화는 이처럼 ‘은유’와 같은 기제에 의해 나타난다. ‘-어 불-’ 역시 ‘은유’에 의해 파생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브리다’의 파생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4) 가. 그 껌기 떼껴 불라. (그 고기를 던져 버려라.) (문순덕(2000:86))

나. 가의가 떡을 먹어 불었저. (그 아이가 떡을 먹어 버렸다.) (문순덕(2000:86))

(4가, 나)는 ‘브리다’의 파생 의미인 ‘종결’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이다.⁶⁾ 즉 (4가)는 ‘고기를 던지는 동작을 종결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4나)는 ‘떡을 먹는 동작을 종결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어 불-’에서 ‘종결’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 역시 원 의미에서 ‘종결’의 의미가 파생되는 경우로 ‘은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두다’, ‘브리다’의 원 의미와 파생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통해 ‘두다’, ‘브리다’의 원 의미와 파생 의미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어 두-’와 ‘-어 불-’이 문법화 2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⁷⁾

그리고 ‘-어 두-’와 ‘-어 불-’이 ‘두다’와 ‘브리다’의 원 의미 일부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다’와 ‘-어 두-’, 그리고 ‘브리다’와 ‘-어 불-’의 논항 구조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두다’와 ‘-어 두-’의 논항 구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5) 가. 두다 : agent, locative, theme

나. ‘-어 두-’ : theme

6) ‘-어 불-’의 문법 의미가 ‘종결’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7) 이러한 보조 용언의 문법화에 대한 특성은 중앙어에서도 확인된다. ‘있다’를 예를 들면 ‘고 있-’, ‘-어 있-’에서의 ‘있다’의 경우는 문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암시된 의미인 ‘진행’, ‘종결’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이지만 ‘철수는 집에 있다.’와 같은 경우, ‘있다’는 원 의미로 쓰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조 용언의 문법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중앙어나 제주 방언에서 문법화 2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겠다.

‘두다’, ‘-어 두-’가 (5)와 같은 논항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된다.

(6) 가. 철순 옷을 옷장이 둔다. (철수는 옷을 옷장에 둔다.)

나. 영순 집이 이서 두서 어신 책 해라. (*영수는 집에 있어 두면서 없는 책 하더라.)

(6가)는 ‘두다’가 세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다’가 필요로 하는 논항은 먼저 옷을 옷장에 두는 행위자(agent)의 의미역을 가진 논항(철수)과 두는 장소(locative)의 의미역을 가진 논항(옷장), 그리고 두는 대상(theme)의 의미역을 가진 논항(옷)이다.

다음으로 (6나)에서 ‘이시다(있다)’는 두 개의 논항, 즉 대상(theme), 장소(locative), 의 의미역을 가진 논항이 필요하다. 이때 ‘이시다’와 결합하고 있는 ‘-어 두-’는 (7)과 같은 논항 구조를 가진다.

(7) ‘-어 두-’ : (x (y...))

정태구(1994)에서는 ‘-아 있-’이 (7)과 같은 논항 구조를 가지지만 x와 y가 동일한 논항이든지 아니면 y가 x의 부분이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논항은 두 개이지만 의미역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아 있-’과 동일한 문법 의미를 가지는 ‘-어 두-’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어 두-’의 논항 역시 ‘이시다’의 논항 중 x와 동일한 y, 즉 ‘대상(theme)’ 의미역을 가진 논항(영수)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영순(영순 집이 이시)어 두서) 어신 책 해라.

x y

즉 (8)에서 ‘이시다’와 ‘-어 두-’의 논항이 주어 ‘영수(Theme)’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 두-’는 ‘두다’의 논항 중에 ‘대상(theme)’의 의미역을 가진 논항만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다.⁸⁾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조 동사 구성이 ‘지

8) 중앙어에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 있-’ 구성의 논항 구조에 대해 논의했던 정

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논항은 '대상(theme)'의 의미역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버리다'와 '-어 불-'의 논항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0) 가. '버리다' : agent, theme

나. '-어 불-' : theme

'-어 불-'은 '버리다'의 논항 중에 버릴 수 있는 '대상(theme)'의 의미역을 가진 논항만이 남아 있는 경우이다. '버리다'와 '-어 불-'이 이처럼 (10)과 같은 논항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은 (11)의 예를 통해 확인된다.

(11) 가. 철수가 책 버렸저. (철수가 책을 버렸다.)

나. 해가 저 불었저. (해가 저 버렸다.)

(11가)는 '버리다'가 버리는 '행위자'와 버리는 '대상', 두 개의 논항이 필요함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11나)는 선행 동사 '지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논항인 '대상(theme)'의 의미역을 가진 논항만이 남아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11나)에서 '-어 불-'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논항 역시 '대상(theme)'의 의미역을 가진 논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태구(1994)의 논의를 참고하도록 한다. 정태구(1994)에서는 구체적인 의미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아 있-'이 다음과 같은 논항 구조를 가진다고 논의하고 있다.

(1) '-아 있-' : (x (y...))

정태구(1994)에서는 '-아 있-'이 (1)과 같은 논항 구조를 가지지만 x와 y가 동일한 논항이든지 아니면 y가 x의 부분이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논항은 두 개이지만 의미역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경우 이 두 논항이 '대상(theme)'의 의미역을 갖는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최기용(1998)에서는 '있다'의 논항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최기용(1998)의 논의를 보면 '-아 있-'의 '있-'을 동사 '있다'로 보고 그 논항 구조와 의미역을 (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있다 : goal, theme

즉 '있다'의 논항은 두 개이고 그 의미역은 '목표(goal)'와 '대상(theme)'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기용(1998)의 논의와 정태구(1994)의 논의를 참고하면 결국 '-아 있-'의 논항 구조는 '있다'의 논항 구조에서 '대상(theme)'의 의미역을 가진 논항만이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어 두-’와 ‘-어 불-’이 ‘두다’와 ‘버리다’의 논항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이들 ‘-어 두-’와 ‘-어 불-’이 문법화 되었음을 문법화 원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먼저 문법화에 대해 Hopper(1991)에서는 ‘층위화의 원리’, ‘분화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의미 지속성의 원리’, ‘탈범주화의 원리’ 등을 그 세부 원리로 설정한 바 있다. 이들 원리는 어휘가 문법화 되는 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먼저 ‘-어 두-’와 ‘-어 불-’의 문법화가 ‘의미 지속성의 원리’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의미 지속성의 원리’는 ‘문법 단위가 원 어휘의 의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현상(Hopper(1991), 이성하(2000:184))’을 가리킨다. 따라서 ‘-어 두-’가 ‘두다’의 핵심 의미에서 파생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의미 지속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그리고 ‘-어 불-’이 ‘버리다’의 핵심 의미에서 파생된 ‘종결’의 의미를 지속하는 것 역시 ‘의미 지속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그리고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어 두-’와 ‘-어 불-’이 각각 ‘두다’와 ‘버리다’의 논항 일부를 지속하는 것 역시 ‘의미 지속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겠다.9) 이처럼 ‘-어 두-’와 ‘-어 불-’에서 ‘의미 지속성의 원리’가 확인된다는 것은 이들이 ‘두다’와 ‘버리다’에서 문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탈범주화의 원리’는 ‘원 어휘가 문법 단위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명사, 동사와 같은 일차적 문법 범주의 특성들을 잃어버리고 보조 용언, 조사, 선어말어미 등과 같은 이차적 문법 범주의 특성을 띠게 되는 현상(Hopper(1991), 이성하(2000:186))’을 말한다.

‘-어 두-’는 앞서도 논의했던 것처럼 ‘두다’에서 문법화된 경우이다. 즉 본래 동사라는 일차적 문법 범주의 특성을 지니던 ‘두다’가 상 의미(지속)를 나타내는 이차적 문법 범주인 보조 용언 ‘-어 두-’로 변화한 경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 불-’ 역시 ‘버리다’에서 문법화한 경우로 본래 동사라는 일차적 문법 범주의 특성을 지니던 ‘버리다’가 상 의미(종결)를 나타내는 이차적 문법 범주인 보조 용언 ‘-어 불-’로 변화한 경우이다. 따라서 ‘-어 두-’와 ‘-어 불-’이 ‘두다’와 ‘버리다’에서 변화한 것은 ‘탈범주화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9) 그리고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어 두-’가 ‘두다’의 결합 제약, 즉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을 유지하는 것 역시 ‘의미 지속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두다’와 ‘봰리다’가 어휘 의미를 가진 경우와 문법화한 경우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분화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분화의 원리’는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여러 형태의 문법소들이 의미·기능상 나누어지는 현상(Hopper(1991), 이성하(2000:178))’을 가리킨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분화는 하나의 어원에서 여러 문법소들이 갈라져 나오는 모든 현상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좁은 의미의 분화는 한 단어가 문법소가 되면서 그 원래 단어는 그냥 어휘어로 남아 있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문법소는 새로운 의미를 얻으며 변해가는 현상(Hopper(1991), 이성하(2000:178))’을 가리킨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두다’에서 ‘-어 두-’가 나오고 ‘봰리다’에서 ‘-어 불-’이 나오는 것은 ‘-어 두-’와 ‘-어 불-’이 ‘두다’와 ‘봰리다’에서 분화된 경우라고 하겠다.

다음은 ‘전문화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어 두-’는 ‘두다’보다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다.

- (12) 가. 영순 집이 이서 돛서 비 오는다 장독 뚜껑도 안 더졌저. (영수는 집에 있으면서 비가 오는데 장독 뚜껑도 덮지 않았다.)
 나. 영인 어지께 학교 가 돛서 안 가뎀 ㄴ라라. (영이는 어제 학교에 갔으면서 안 갔다고 말하더라.)

(12가, 나)에서 ‘-어 두-’는 3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되는 것처럼 ‘지속’의 의미를 가진다. 즉 구체적으로 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놓았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집에 있었다는 ‘지속’의 의미가 확인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지속’의 의미는 상 범주에 포함된다. ‘두다’가 이처럼 ‘지속’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전문화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즉 어휘가 특정 문법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능이 전문화 된 경우라는 것이다. Hopper(1991)에서는 ‘전문화의 원리’를 ‘한 문법소가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어떤 문법 기능 범주 안에 포함되는 여러 문법 단위가 있을 경우 이들은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에서 특정 문법 단위가 해당 문법 기능을 전담하는 문법소로 변화하는 현상을 ‘전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처럼 어휘가 문법 단위로 변화하여 특정 문법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능이 전문화 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법 기능이 전문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화’ 현상은 ‘-어 불-’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어 불-’에서

확인되는 전문화의 예이다.

(13) 가. 느 먼저 먹어 불라. (너 먼저 먹어 버려라.)

나. 경 ㄹ라가난 집이 가 불엇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에 가 버렸다.)

(13가, 나)의 ‘-어 불-’은 3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되는 것처럼 ‘종결’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종결’의 의미는 상 범주에 포함되는 문법 의미이다. 이처럼 ‘-어 불-’이 ‘종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앞서도 논의했던 것처럼 문법 기능이 ‘종결’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 방언에서 ‘두다’가 파생 의미를 가진 형태로 문법화한 이후 ‘두다’의 파생 의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이전의 문법 단위들과 공존하는 것은 ‘층위화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층위화의 원리’는 ‘옛 층위와 새 층위가 공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문법화가 일어나 새로운 문법 단위가 생겨나도 이전의 문법 단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와 공존한다는 것이다. ‘-어 두-’의 예를 통해 ‘층위화의 원리’의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표 1.

...	→	-영 이시-(지속)
두다	→	-어 두-(지속)

(표 1)을 보면 유사한 문법 의미를 가진 ‘-어 두-’와 ‘-영 이시-’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문법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도 이전의 문법 단위(‘-영 이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문법화 된 경우와 공존한다. 이러한 사실은 ‘-어 불-’에서도 확인된다.

표 2.

...	→	-어시-(종결)
버리다	→	-어 불-(종결)

(표 2)는 ‘버리다’에서 문법화된 ‘-어 불-’과 동일한 ‘종결’ 의미를 가진 ‘-어 시-’가 ‘-어 불-’과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층위화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이처럼 ‘두다’와 ‘버리다’에서 문법화된 ‘-어 두-’, ‘-어 불-’에서 ‘층위화의 원리’가 확인된다는 것은 이들이 문법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어 두-’와 ‘-어 불-’이 문법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이들 ‘-어 두-’와 ‘-어 불-’의 문법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3. ‘-어 두-’와 ‘-어 불-’의 문법 의미

먼저 ‘-어 두-’의 문법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¹⁰⁾ 중앙어의 보조 용언을 대상으로 논의한 김성화(1992, 2003)에서는 보조 용언이 주로 상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¹¹⁾ 이에 대해 제주 방언의 경우에서도 과연 이들 보조 용언을 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점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먼저 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황이 나타내는 시간 구조에서 상 해석에 필요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주 방언에서 ‘-어 두-’는 ‘결과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¹²⁾

10) 김성화(1992, 2003)에서는 보조 용언의 문법 의미 이외에 문법적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어 두-’와 ‘-어 불-’의 문법 의미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1) 김성화(1992, 2003)에서는 ‘-어 두-’를 보유성 종결상(보존성 종결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두다’의 의미가 ‘-어 두-’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성화(1992, 2003)에서는 ‘주동사 두-’는 대상을 보호하여 일정한 모습으로 위치케 함을 나타내는데, 이 의미에서 전이된 ‘-어 두-’의 상 기능은 보존성 종결로서, 동작의 종결과 더불어 종결된 동작 내용을 미래의 일을 위해 보존함을 나타낸다. (김성화(1992:205, 2003:235))’라고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 방언 ‘-어 불-’에 해당하는 ‘-어 버리-’는 ‘소거성 종결상(제거성 종결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어 버리-’에 대한 설명에서 역시 명시적으로 “-어 버리-’의 상 기능은 주동사의 이러한 구체적인 의미(‘필요하지 않은 대상의 제거’)가 전이되어 형성된 것”(김성화(1992:240, 2003:274))으로 논의하고 있다. 즉 중앙어 ‘-어 두-’와 ‘-어 버리-’가 각각 주동사 ‘두다’와 ‘버리다’의 의미가 전이되어 형성된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 글에서의 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김성화(1992, 2003)에서는 ‘-어 두-’와 ‘-어 버리-’에 남아 있는 ‘두다’와 ‘버리다’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유성(보존성)’, ‘소거성(제거성)’과 같은 의미를 상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이 글에서는 문법적인 의미만을 중심으로 하여 ‘결과 지속’, ‘종결’과 같이 원 의미를 일반화, 추상화하고 있다는 점만이 다르다고 하겠다.

12) 문순덕(2000)에서는 ‘-어 두-’의 의미를 ‘상태 지속’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14) 가. 영인 하루 종일 집이 이서 들어서 었뎡 굴아라. (영이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 두면서 없다고 말하더라.)

나. *영인 혼 시간만이 집이 이서 들어서 었뎡 굴아라. (*영이는 한 시간만에 집이 있어 두면서 없다고 말하더라.)

(14가)는 ‘-어 두-’가 시간 부사구 ‘하루 종일’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14나)는 ‘-어 두-’가 시간 부사구 ‘혼 시간만이’와는 결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결과 지속’과 같이 시폭을 나타내는 경우는 ‘하루 종일’과 같이 ‘과정(지속)’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와는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지만 ‘혼 시간만이’와 같이 ‘종결’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와는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14가)와 (14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 두-’가 시폭(결과 지속)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어 두-’가 ‘결과 지속’의 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어 두-’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어 두-’에 의해 ‘지속’ 되는 상황은 이미 상황이 종결되어 지속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5) 가. *영순 학교 가 두서 다 가진 안 했져. (*영수는 학교에 가 두면서 다 가지는 않았다.)

나. *영인 밥 먹어 두서 다 먹진 안 했져. (*영이는 밥 먹어 두면서 다 먹지는 않았다.)

(15가)는 선행절에서 이미 상황이 종결되어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행절에서 다시 이를 부정적으로 추론하고 있어 비문이 되는 경우이다. (15나) 역시 선행절에서 영이가 밥을 먹는 상황은 이미 종결되어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행절에서 다시 이를 부정하고 있어 비문이 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제주 방언에서 ‘-어 두-’가 ‘결과 지속’의 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선행 상황이 ‘결과 지속’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과 지속’의 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기가 어렵다.

(16) 가. 가인 집이 가 들어서 집이 어신 책 해라. (*그 아이는 집에 가 두면서 집에 없는 척 하더라.)

나. 가인 밥 먹어 덤서 안 먹은 책 해라. (*그 아이는 밥을 먹어 두면서 안 먹은 책 하더라.)

(16가)는 ‘집이 가-’가 ‘결과 지속’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행 상황이 ‘결과 지속’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만 이와 결합하여 ‘결과 지속’의 상 의미를 나타낸다. (16나)는 ‘-어 두-’가 ‘먹다’와 결합한 경우이다. 그런데 ‘먹다’는 ‘결과 지속’의 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어 두-’는 ‘결과 지속’의 상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이 경우는 단순히 선행 상황이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문법적 특징을 보인다. 이는 제주 방언에서 ‘-아시-’가 ‘결과 지속’과 ‘종결’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유사한 특성이다.¹³⁾

지금까지 ‘-어 두-’가 나타내는 ‘결과 지속’의 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은 ‘-어 두-’의 또 다른 문법 특징인 상 선언어미와의 결합 제약 현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¹⁴⁾ ‘-어 두-’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언어미와는 결합할 수 없다.

(17) 가. 아버지진 오늘 신문 보아 덤서 안 보았젠 해라. (*아버지는 오늘 신문을 보아 두면서 안 보았다고 하더라.)

나. *아버진 오늘 신문 보아 두엄서 안 보았젠 해라. (*아버지는 오늘 신문을 보아 두고 있으면서 안 보았다고 하더라.)

다. *늘랑 그거 저레 놔 뉘시라. (*너는 그거 저곳에 놓아 두고 있어라.)

라. 아버지진 밥 다 먹어 감쨌. (아버지는 밥을 다 먹고 있다.)

13) 이에 대해서는 우창현(2004가)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14) 중앙어 ‘-어 두-’에 대해 논의했던 김성화(1992, 2003)에서는 ‘-어 두-’의 문법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어 두-’는 종결점을 가지므로 타동사인 선행 주동사 및 사동사와 결합하지만 피동사와는 결합하지 않으며, 또한 도달점을 갖지 아니하는 부사 ‘동안’과 공기하지 않는다. 둘째, 동작이 갖는 전개 쪽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순간 동사, 전개 동사, 완성 동사 모두와 결합할 수 있다. 셋째, ‘-어 두-’가 지시하는 종결된 동작 내용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예비적 성격을 나타낸다. 넷째, 동작주가 [+인간]일 때 의도적인 종결을 나타낸다. 다섯째, 보존될 수 없는 선행 동작 내용과는 결합될 수 없다. 여섯째, 인간의 의도나 의지로 표출·제어하기 어려운 감정 동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일곱째, 단속성 반복 ‘-곤 하-’와의 결합이 가능하며 이때 ‘-어 {두곤} 하-’는 종결된 동작들의 간헐적 반복을 나타낸다. 여덟째, 타동성 종결 ‘-고2 있-’과 결합하여 보유성 종결의 결과가 동작주에게 남아 있음을 나타내고, 통과성 종결 ‘-고 나-’와 결합하여 보유성 종결의 목표적 통과를 나타낸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제주 방언 ‘-어 두-’의 문법화와 문법 의미만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어 두-’의 이러한 문법적 특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17가)는 ‘-아 두-’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정문이다. 이에 대해 (17나)는 ‘-아 두-’가 ‘-엄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로 비문이다.¹⁵⁾ (17다) 역시 ‘-아 두-’가 ‘-엄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로 이 역시 비문이다.

이처럼 ‘-아 두-’가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이 불가능한 이유는 ‘-아 두-’의 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두-’가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을 두는 동작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진행’과 같이 시폭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의 결합 제약 현상이 ‘-어 두-’로 문법화 된 이후에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다.¹⁶⁾ 이는 (17라)와 같이 다른 보조 용언 ‘-어 가-’가 선어말어미 ‘-엄시-’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것과 구분되는 경우이다.

다음은 ‘-어 불-’의 문법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¹⁷⁾ 먼저 ‘-어 불-’이 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황이 나타내는 시간 구조에서 상 해석에 필요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주 방언에서 ‘-어 불-’은 ‘종결’의 의미를 나타낸다.¹⁸⁾

(18) 가. *영이야, 하루 종일 학교에 가 불라. (*영이야, 하루 종일 학교에 가 버려라.)

15) (17가)를 (17나)의 축약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주 방언에서 (17가)의 ‘-ㅁ서’와 (17나)의 ‘-엄시(-엄시--어)’는 별개의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로 서로 구분되어 쓰이기 때문이다.

16) 이 또한 ‘-어 두-’가 ‘두-’의 결합 제약 현상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로 앞서 논의했던 문법화의 원리 중 ‘의미 지속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7) 중앙어 ‘-어 버리-’에 대해 김성화(1992, 2003)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법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작의 종결점이 있는 완성 동사, 전개 동사, 순간 동사 모두와 결합한다. 둘째, 선행 자동사 및 타동사 모두와 결합할 수 있다. 셋째, 선행 동사가 지각 동사이고, 그 지각 대상이 금기적일 때 ‘-어 버리-’는 [+의지성] 부사와 공기할 수 없으며, ‘읽-’과 같은 비지각 동사와 결합하는 ‘-어 버리-’는 [-의지성] 부사와 공기할 수 없다. 넷째, ‘많이, 완전히, 무성하게’ 등의 포화성 부사와 공기하며, 원칙적으로 ‘조금, 약간’ 등의 지소성 부사와 공기하지 않는다. 다섯째, 순간성 부사 및 도달성 부사와 공기하여 일회성 종결을 나타내며, 특별한 발화 상황에서 간헐성 부사나 항시성 부사와 공기하는 경우에도 ‘-어 버리-’는 일회성 종결의 의미를 가진다. 여섯째, 단속성 반복 ‘-곤 하-’, 통과성 종결 ‘-고 나-’, 일탈성 종결 ‘-고 말-’에 선행할 수 있다. 일곱째, ‘-어 버리-’는 의지성에 관한 한 중립적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제주 방언 ‘-어 불-’의 문법화와 문법 의미만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어 불-’의 이러한 문법적 특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18) ‘-어 불-’에 대해 문순덕(2000)에서는 그 의미를 ‘완료’라고 논의하고 있다.

나. 영이야, 혼 시간만이 학교에 가 불라. (*영이야, 한 시간만에 학교에 가 버려라.)

(18가)는 ‘-어 불-’이 시간 부사구 ‘흐루 종일’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로 비문이다. 이에 대해 (18나)는 ‘-어 불-’이 시간 부사구 ‘혼 시간만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로 정문이다. 일반적으로 ‘종결’을 나타내는 문법상인 경우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와는 결합할 수 없지만 ‘혼 시간만이’와 같이 ‘동작의 끝(종결)’을 지시하는 시간 부사구와의 결합은 자연스럽다. 이 경우 ‘혼 시간만이’는 동작이 종결되는 시점을 지시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 불-’이 ‘종결’의 상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어 불-’이 ‘종결’의 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이외에도 ‘-어 불-’이 포함되어 있는 선행절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 가. *영인 집이 가 불었저. 경호주만은 집이 도착흐진 안 했저. (*영이는 집에 가 버렸다. 그렇지만 집에 도착하지는 않았다.)

나. *철순 밥 먹어 불었저. 경호주만은 다 먹진 안 했저. (*철수는 밥을 먹어 버렸다. 그렇지만 다 먹지는 않았다.)

(19가)는 ‘-어 불-’이 포함되어 있는 선행절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19나) 역시 ‘-어 불-’이 포함되어 있는 선행절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어 불-’이 포함되어 있는 선행절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이 불가능한 이유는 ‘-어 불-’이 동작의 ‘종결’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이미 종결된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추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 불-’은 ‘-어 두-’와 달리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서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20) 가. 철순 밥 다 먹어 불엄스저. (*철수는 밥을 다 먹어 버리고 있다.)

나. 영인 이제민 집이 가 불엄스저. (*영이는 지금이면 집에 가 버리고 있다.)

(20가)는 동사 ‘먹-’에 ‘-어 불-’이 결합하고 이에 다시 선어말어미 ‘-엄스-’가 결합한 경우로 정문이다. 이에 대해 (20나)는 동사 ‘가-’에 ‘-어 불-’이

결합하고 이에 다시 선어말어미 ‘-엄시-’가 결합한 경우로 이 역시 정문이다.¹⁹⁾ 이처럼 ‘-어 불-’은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서도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글은 ‘-어 두-’와 ‘-어 불-’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 방언 보조 용언 구성의 문법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어 두-’와 ‘-어 불-’이 아직 완전하게 문법화된 것이 아니고 문법화 되는 과정 중에 있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승욱(2001)의 논의를 빌어 문법화 2단계에 있다고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공시적인 제주 방언에서 ‘두다’, ‘버리다’가 원 의미와 암시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원 의미에서 파생 의미가 나타나는 문법화 기제를 ‘은유(Metaphor)’라고 논의하였다.

다음은 이들 ‘-어 두-’와 ‘-어 불-’이 문법화 되었음을 문법화 원리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어 두-’가 ‘두다’의 많은 의미에서 핵심 의미인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의미 지속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았다. 그리고 ‘-어 불-’이 ‘버리다’의 의미에서 ‘종결’의 의미를 지속하는 것 역시 ‘의미 지속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처럼 ‘-어 두-’와 ‘-어 불-’에서 ‘의미 지속성의 원리’가 확인된다는 것은 이들이 문법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본래 동사라는 일차적 문법 범주의 특성을 지니던 ‘두다’, ‘버리다’가 상 의미(지속)를 나타내는 이차적 문법 범주인 보조 용언 ‘-어 두-’와 ‘-어 불-’로 변화한 것은 ‘탈범주화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았다.

그리고 ‘두다’와 ‘버리다’가 어휘와 문법 단위로 나누어지는 것은 ‘분화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어 두-’는 ‘두다’보다 더 문법적으로 전문화 되었다고 논의하였다. 즉 ‘-어 두-’가 나타내는 ‘지속’의 의미는 상 범주에 포함되는 문법적으로 전문화된 경우라고 보았다.

그리고 제주 방언에서 ‘두다’, ‘버리다’가 파생 의미를 가진 형태로 문법화한 이후 이전의 문법 단위들과 공존하는 것은 ‘충위화의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았다.

19) ‘-엄시-’가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창현(1998, 2003년)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3장에서는 ‘-어 두-’와 ‘-어 불-’의 문법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이들이 각각 ‘결과 지속’과 ‘종결’의 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 두-’가 ‘결과 지속’의 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과정’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는 점, ‘-어 두-’가 포함되어 있는 선행절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어 불-’이 ‘종결’의 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은 ‘종결’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는 점, 그리고 ‘-어 불-’을 포함하고 있는 선행절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외에 ‘-어 두-’가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에 반해 ‘-어 불-’은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 강정희(1988), *제주 방언 연구*,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 고영진(1991), 제주도 방언의 회상법의 형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국어의 이해와 인식*(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총), 서울: 한국문화사.
- 김성화(1992), *국어의 상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김성화(2003), *국어의 상 연구*(개정판), 서울: 한신문화사.
- 김영옥(1995), *문법 형태의 역사적 연구: 변화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이정.
- 김용경(2002), 문법화의 단계성에 대한 고찰, *한글* 256, 45-68면.
- 김태엽(2000), 국어 종결어미화의 문법화 양상, *語文研究* 33, 47-68면.
- 김태엽(2001), 기능어의 문법화, *우리말글* 23, 1-23면.
- 문순덕(2000), 제주 방언 보조 용언의 통사·의미, *제주언어사회* 5, 83-97면.
- 서태룡(1985), 정동사 어미의 형태론, *진단학보* 60, 159-193면.
- 우창현(1998), *濟州 方言의 相 研究*, 박사학위논문(서강대).
- 우창현(2003나), *상 해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우창현(2004가), 제주 방언 ‘-아시-’의 문법화와 문법 의미, *한국어학* 24.
- 이성하(2000),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승욱(1973), *國語文法體系의 史的研究*, 서울: 一潮閣.
- 이승욱(2001), 문법화의 단계와 형태소 형성, *國語學* 37, 263-283면.
- 이정애(1998), 문법화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흐름, *한국언어문학* 40, 149-

169면.

- 정태구(1994), '-어 있다-'의 意味와 論項構造, *國語學* 24, 203-230면.
- 주경미(1990), 근대국어의 선어말어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단국대).
- 최기용(1998), '있-'의 범주, 논항 구조 그리고 능력성, *國語學* 32, 107-134면.
- 최동주(2002), 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 *語文學* 76, 119-152면.
- 최명옥(2002), 過去時制 語尾의 形成과 變化, *震檀學報* 94, 135-165면.
- 한동완(1986), 過去時制 '-있-'의 通時論的 考察, *國語學* 15, 217-247면.
- 허웅(1982), 한국말 때매김법의 걸어온 발자취, *한글* 178, 3-51면.
- 홍종립(1999), 현대 국어의 의문법 체계 고찰(1), *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 36, 85-117면.
- Bybee, Joan L., William Pagliuca, & Revere D. Perkins.(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ne(1994c),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Handout for 1992 Stanford/Berkely grammaticalization workshop.
- Hopper, Paul J.(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In Traugott & Heine,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vol 1 : 17-35.
- Hopper, Paul J & Elizabeth Closs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hman(1982), *Thought on Grammaticalization: A Programmatic Sketch*. vol 1.1. Arbeiten des kölnener Universalien-projekts(AKUP) 48. Cologne: Universität zu Köln. Institut für Sprachwissenschaft.

우창현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한국어세계화재단 연구실

전화 : (02) 2669-9786

이메일 : wooch@sogang.ac.kr

Received: 30 September, 2004

Revised: 28 November, 2004

Accepted: 10 December, 2004